

강철의 유통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철이나 강철을 나무상자에 넣어 새끼줄로 감아서 출하했습니다. 새끼줄을 감는 방법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상자를 잡기 쉽고 배로 선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경우에도 갈고리로 새끼줄을 걸어 인양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었습니다. 야스기에서 출항한 배는 당초 일본의 서쪽 바다 연안의 남서쪽으로 향했고, 이후 간몬 해협(일본 본토와 규슈 사이)을 동쪽으로 돌면서 세토 내해(일본 본토와 시코쿠 사이)를 지나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로는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확장되었습니다. 야스기에서 기타마에부네라고 불리는 상선이 북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일본 최북단의 섬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활발해진 결과, 야스기는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